

LMS 시스템 시나리오

소속 : 3조

이주희

juhee1408@gmail.com

1. LMS 시스템 학생 시나리오

Scene #1 상담신청

지연은 검색을 통해 비트캠프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찬찬히 메뉴를 훑고 “강좌소개” 페이지에 들어가니 현재 “진행중인 강의”와 “모집중인 강의” 목록이 눈에 들어왔다. 모집중이라 표기된 강의를 클릭하자 페이지엔 앞서 확인한 정보 외에도 커리큘럼이 띄워졌다. 지연은 커리큘럼을 다운받아 읽고 이 과정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그래밍인지라 겁이 더러웠다. 페이지 하단의 “상담안내” 버튼을 누르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찾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눌렀다. 아직은 두렵지만 상담부터 받아보자는 마음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이내 비트캠프 안양센터의 행정부와 연결되었다. 지연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학원을 찾을 약속을 하고 통화를 마쳤다.

Scene #2 내 강의실

지연은 비트캠프 안양센터에서 무사히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첫 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각자 학원내 LM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안내받았다. 유의해야 할 점들과 설명을 마치자 오리엔테이션은 끝이 나고 각자의 강의실로 이동했다. 지연도 자신의 강의실로 이동해 컴퓨터를 켰다.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습관리시스템’ 메뉴를 누르자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 공지사항과 개설 예정인 강의들, 그리고 SNS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들이 눈에 들어왔다. 로그인란에 안내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접속하자 입력란이 있던 위치엔 자신을 환영하는 문구가 떴다. 아래엔 버튼이 3개가 보였다. 내 강의실, 과제, 로그아웃. 과제 버튼은 수업 중 내주는 과제를 위한 란인가 보다 하는 감이 왔지만 내 강의실은 무슨 정보가 있는 지 단번에 감이 잡히지 않았다. 지연은 ‘내 강의실’을 눌러보았다. 그러자 자신의 출석정보와 현재 수강중인 강좌에 대한 정보, 성적. 그리고 질문게시판과 과제게시판. 수업 자료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창과 캘린더가 보였다. 출석정보가 있는 란은 자신의 지각, 조퇴, 결석에 대한 수치가 전부 나와있었다. 이 페이지에서 손쉽게 학원을 다니며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지연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시간을 기다렸다.

Scene #3 수업자료 게시판

수업이 시작하고 지연은 앞으로 3개월간 함께할 강사님을 만났다. 간단한 소개를 마친 후 강사님은 학습관리시스템 페이지를 언급해 이 곳의 수업자료 게시판에 모두 들어오도록 요청했다. 오늘의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올려 놓았으며 앞으로 수업에서 진행한 모든 자료는 이 곳에 올라온다고 한다. 지연은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게시글을 클릭했다. 글 안에는 어떤 수업에 대한 자료인지가 써있었으며 첨부파일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있었다. 지연은 PPT 자료를 다운받아 수업을 들을 준비를 했다.

Scene #4 과제게시판

이론 수업을 마치자 당연한 흐름처럼 지연에게 과제가 찾아왔다. 반복문을 사용해 구구단을 출력하는 것이었다. 언젠가 써야하는 게시판이라는 건 알았지만 역시 과제라는 건 그리 유쾌하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었다. 지연은 과제 게시판에 접속했다. 지금 진행중인 과제가 상단에 커다랗게 나와있었으며 아래의 과제목록에도 표시되어 있었다. ‘미제출’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얼른 제출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지연은 과제를 시작했다. 지금껏 배운 내용을 다시 찾아가며 서툴게 작업하고 어영부영 과제를 마쳤다. 과제게시판에 과제를 제출하자 ‘미제출’ 표시가 ‘제출’로 변경되었다. 정상적으로 과제를 마친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갈 길이 멀다고 느껴졌다.

Scene #5 질문게시판

첫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연은 다음 과제에 자신이 붙었다. 이번 과제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차분히 과제를 진행하던 도중 벽에 가로막혔다. 분명 자신은 논리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도무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 없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중 지연의 머릿속에 질문게시판의 존재가 스쳤다. 아, 그렇지. 지연은 질문게시판에 접속했다. 목록을 보니 다른 학생들도 과제를 하며 막힌 부분이 있는지 이미 작성된 질문들이 가득했다. ‘미해결’ 상태로 되어있는 글들 아래 ‘답변완료’로 상태가 바뀌어 있는 것이 보였다. 자신만 막막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지연은 어쩐지 안도감을 느끼며 질문글을 작성했다. 파일첨부란에 자신이 작성한 코드 내용을 첨부하고 자신이 모르겠는 부분을 내용에 상세히 작성해 글을 올렸다.

Scene #6 일정등록

하루하루 수업을 진행할 수록 과제와 개인공부 일정을 관리하는 게 어려웠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연은 고민했다. 그러던 중 귀에 확 박히는 강사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시험을 본다는 말이었다. 분명 내 강의실을 보면 시험 성적을 확인하는 곳이 있었으니 시험을 본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들이닥치니 아득해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체념한 지연은 강사님의 말을 암전히 들었다. 캘린더의 일정을 확인하면 시험 일정을 등록해두었다고 한다. 지연은 생기없는 눈빛으로 기계마냥 캘린더를 누르고 일정란에 들어가 확인했다. 캘린더의 날짜 한 칸에 작게 표시가 되어있는 게 보였다. 마우스커서를 가져가자 ‘1차 시험’이라는 문구가 떴다. 이 날이구나. 잊지 말아야겠다. 지연은 공부를 하는데 있어 이 캘린더를 활용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 공부하며 확인하다보면 시험날짜가 다가오는 것도 체감될 것 같았다. 한숨을 내쉬며 지연은 공부 계획을 새로 잡았다.

Scene #7 성적조회

시험을 마치고 지연은 낮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으나 바쁜 일정에 금방 궤도로 돌아왔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면 시험성적 입력을 끝냈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있었다. 시험성적을 확인하는 건 언제나 사형선고를 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학교 성적과 달리 내신이나 서류에 반영되는 점수가 아님에도 시험이라는 말은 묵직하게 다가오기 마련이었다. 학습관리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내 강의실로 이동한 뒤 시험성적 버튼을 눌렀다. 1차 성적란에 B 표기가 되어있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완전 못보지는 않았구나. 공부한 보람이 느껴졌다. 2차, 3차 성적란이 비어있는 걸 보면 앞으로 시험은 2번이 더 있겠구나 싶었다. 옆엔 그래프로 자신의 성적과 반 평균 성적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평균점수를 본 지연은 우리 반 학생들은 거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연은 홈페이지를 닫았다.

Scene #8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지연은 어느때처럼 학습관리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려다 손을 멈췄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괜히 비밀번호를 새롭게 만들었다. 늘 사용하던 걸 쓸 걸. 지연은 후회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떠올려보았지만 입력하는 족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해달라는 알림창만이 뜰 뿐이었다. 더 이상 떠오르는 패턴도 없었다. 지연은 그제서야 포기하고 메인화면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렀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 비밀번호 변경시 기입했던 문구를 입력하자 새롭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지연은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늘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변경했다.

Scene #9 회원정보 수정

지연의 눈 앞에 보이는 것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다. 지연은 여기서 비밀번호를 수정한 이후 이 페이지에 다시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어제 막 이사를 마쳤기에 주소를 수정하러 들어왔다. 자신이 기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는 페이지를 보며 주소란을 찾았다. 아직은 낯선 주소를 찾고 아파트 이름을 썼다. 그리고 수정완료를 하면 개인정보 페이지에 자신의 주소정보가 갱신되어 있었다.

2. LMS 시스템 강사 시나리오

Scene #1 내 강의실

지식은 이번에 비트캠프 안양센터에 새로 온 강사다. 행정부를 통해 학습관리시스템 페이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받은 지식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이 시스템 페이지에 익숙해져야 편할 것이라 판단했다. 비트캠프 안양센터 홈페이지 메뉴에서 '학습관리시스템'을 클릭해 학습관리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했다. 로그인란이 보였지만 화면에 있는 걸 우선 하나씩 파악하기로 했다. 상단의 비트캠프 로고를 클릭하자 방금 전 봤던 비트캠프 안양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다시 돌아와 공지사항란을 눌러보자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떴다. 그 아래의 SNS로 이동하는 버튼을 하나씩 누르자 해당 페이지로 이동했다. 우측 상단의 메뉴바도 로그인을 해야 확인가능 했다. 로그인란 아래에 보이는 개설 예정 강좌를 눌러 페이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지식은 지금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했다. 로그인하자 좌측 상단에 메뉴가 그려진 버튼이 떴다. 눌러보자 메뉴란이 아래로 길게 펼쳐졌다. 내 강의실, 출석관리, 질문게시판, 과제게시판, 수업자료게시판, 스케줄. 메뉴를 확인하고서 아까 봤던 우측 상단의 메뉴바도 눌러보았다. 내 정보, 내 강의실, 메인, 로그아웃. 로그인란이 있는 위치에는 내 강의실, 출석관리, 로그아웃 메뉴가 있었다. 내 강의실이 주로 사용할 기능이겠지. 지식은 '내 강의실'로 접속했다. 접속하자 자신이 담당한 수업내 학생들의 출결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쉬보드,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 강의 정보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성적입력과 성적조회를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이곳에서 이동할 수 있었다. 아래로 아까 메뉴에서 보았던 질문게시판, 과제게시판, 수업자료게시판, 캘린더가 보였다. 아까 그 메뉴바를 통해 한번에 갈 수 있구나. 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Scene #2 출석입력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한다 생각한 지식은 '내 강의실'에서 보이는 출석입력 버튼을 눌러보았다. 출석입력 페이지엔 수업날짜와 학생들의 이름이 표로 정렬되어 있었다.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기에 각 학생별로 마지막 칸엔 출석률이 표시되도록 되어있었다. 해당 칸을 누르면 체크표시가 되어 출석처리가 됐다. 이 외에도 이 페이지 내에서 학생들의 지각, 조퇴, 외출, 결석 처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Scene #3 수업자료 게시판

지식은 수업을 앞둔 며칠 전 첫 수업을 대비해 준비를 해야겠다 여겨 다시금 비트캠프 안양센터의 학습관리페이지에 접속했다. 수업에 필요한 ppt를 올려두어야 학생들이 편하게 자료를 볼 것이다. 지식은 수업자료 게시판에 들어와 작성 버튼을 눌렀다. 제목과 내용에 첫 날 진행할 주제와 내용을 간단히 적고 파일업로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올렸다. 무사히 작성을 마치고 수업자료 게시판에 자신이 올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Scene #4 과제게시판

수업도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고 지식은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과제를 알리고 이 과제들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학습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했다. 게시판 하단엔 이미 이전에 지식이 낸 과제들이 종료된 상태로 늘어져있었다. 지식은 과제내기 버튼을 눌러 새 과제를 등록했다.

Scene #5 질문게시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실습과제를 내준 지식은 이 시간을 이용해 남은 제 할 일을 하기로 했다. 학습시스템 페이지의 내 강의실로 들어가 질문 게시판으로 이동했다. 들어가자 어느새 새로운 질문들이 올라와 미해결 상태로 떠 있었다. 지식은 아직 답변하지 않은 질문글에 들어가 꼼꼼히 질문을 살피고 그 글의 댓글란에 자신의 답변을 달았다. 답변을 완료하면서 글을 답변완료 상태로 변경해두었다.

Scene #6 성적입력 및 조회

시험이라면 으레 학생들의 원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쩔 수 없는 절차였다. 시험을 마친 후 지식은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 학습관리 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했다. 내 강의실 페이지로 들어오면 우측에 성적입력 버튼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성적입력 페이지로 이동하니 회차와 학생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었다. 지식은 마우스를 움직여 각 학생별로 점수를 입력했다. 점수를 입력하자 우측과 하단에 이번 시험의 평균 점수를 볼 수 있었다.

3. LMS 시스템 관리자 시나리오

Scene #1 강의관리

주연은 새 강의를 등록하기 위해 비트캠프 안양센터 홈페이지의 학습관리시스템 페이지를 열었다.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 메인 페이지에 회원, 강의, 출결, 일정을 관리하는 버튼이 떴다. 주연은 강의관리 페이지로 이동했다. 지금까지 진행한 강의들과 진행중인 강의들, 그리고 앞서 진행될 강의를 목록에 떴다. 주연은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하나씩 새로 열릴 강의에 대한 정보를 기입했다. 작성을 완료하고 등록하자 강의관리 페이지에 방금 작성한 것이 가장 위에 새롭게 나타났다. 잘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자 등록된 강의정보가 페이지에 떴다. 강의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니 해당 수업의 강의실 페이지도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주연은 비트캠프 안양센터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강좌소개 페이지에 새로 입력한 강의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까지 마쳤다.

Scene #2 회원 등록 및 관리

주연은 새로이 원생이 된 학생들과 강사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회원관리란을 찾았다. 학생목록이 주욱 나오고 그 리스트 위에 강사관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보였다. 우선 새로운 원생들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했다. 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우선 기입해둔 정보를 보며 오타가 없이 주의해 적었다.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하므로 따로 등록해주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비밀번호는 개인마다 수정이 필요하기에 자신이 관리할 영역이 아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아이디를 만들고 나니 이젠 강사를 등록할 차례다. 강사 등록은 학생 등록과 양식이 같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강사가 가진 자격증 정보와 경력을 기입해야 한다. 주연은 꼼꼼히 살펴 하나하나 추가해넣었다.

Scene #3 게시판 관리

학습관리시스템 페이지를 나오기 전 주연은 게시판을 돌아보았다. 질문게시판, 수업자료게시판, 과제게시판. 현재 진행중인 강의 별로 돌아보면 게시글 목록 옆에 체크박스과 우측하단에 삭제버튼이 보였다. 게시판 상태는 문제가 없어서 삭제할만한 글은 없었다.

Scene #4 일정등록

주연은 마지막으로 일정등록 페이지를 찾았다. 자신이 기입한 스케줄에 혹시 오류라도 있을까 혹시 몰라서였다. 페이지를 들어가자 좌측엔 캘린더, 우측엔 일정을 기입하는 기능이 떴다. 이미 입력되어 있는 스케줄을 하나씩 확인해보며 오타자가 없나 확인해보았고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주연은 안심하고 페이지를 껐다.